“ 피곤하다. “

요즘 내내 그런 생각만 한 것 같다. 시간은 더디게 가고, 지방이라 그런지 할 일은 너무 없고.

얼마 전에 드디어 MAM 사용 자격증을 따고 지방 병원에 일자리를 얻었다.

참, 처음에 MAM이 공개되었을 때가 떠오른다.

‘ 게임에라도 쓰이게 될까.. ’

생각하면서 흥미 있게 관련 기사들을 살펴보고 있었던

나는 의료 기계라는 말을 듣고 어린 시절 의사의 꿈을 떠올렸다.

‘ 프로그램으로 구현된 환자의 기억을… ’

이라는 구문을 보곤 결국 프로그래머가 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겠다 싶어서

그날로 나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프로그래머를 그만두고,

의료 자격증이지만 허들이 낮다고 평가받던 MAM 자격증을 따기로 했었다.

그랬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가만히 MAM의 모니터만 바라보던 나에게, 이메일이 도착했다.

“ 스캔 부서 복 팀장..? ”

부서와 이름을 듣자마자 나는 새로운 일이 생겼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.

‘ 마침 심심하던 차인데 잘됐다. ’

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이메일을 다 읽었다.

별 내용은 없었지만 정리하자면 새로운 환자가 왔고, 이미 스캔과 상담이 끝났단다.

여기 사람 표시 아이콘을 누르면 됐었지. 참 맥없는 UI의 OS다. 누가 만들었는지 참.

“ 화가인데 흰색에 거부감을 느낀다고? “

‘ 참 기묘한 증상이네 ’

그렇게 생각하며 천천히 VR을 쓰고, 기억에 접속할 준비를 했다.

다른 사람의 기억에 들어간다는 느낌, 참 묘한 느낌이라고 생각하던 차에 접속에 성공했다.

접속에 성공하자마자 보이는 건 가정집인 것 같았다.

“ 투룸에 침대도 킹사이즈고.. 꽤 돈이 많은 사람인가?

요즘 집세가 엄청나게 올라서 혼자서 이렇게 사는 건 힘들 텐데? ”

현실에 대해 불평하다가, 서재로 보이는 방에 들어가자 세 개의 캔버스가 놓여 있었다.

상호작용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, 다가가서 상호작용해보니 역시나 다른 기억으로 이어져 있었다.

잠깐의 생각 후, 나는 주변을 살펴보다가, 환자의 기억 복제본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.

“ 아마 이때 생애 처음으로 나루터에 와봤던 것 같아. 평소엔 오지 않으니까. ”

‘ 누군가랑 같이 나루터로 여행 온 건가? ’

아마 그림 속으로 들어와 진 것 같은데, 원인을 찾아야 하니 주변을 살펴보았다.

주변에 흰색 물감 튜브가 놓여 있었다.

아마 이걸로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던 차,

어떤 물체는 기억 속의 다른 물체들과 상호작용하여, 환자의 기억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정보가 떠올랐다.

한참을 헤맨 후에, 나는 이 물감 튜브가 물체의 색깔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.

텐트 앞의 놓여 있는 캔버스의 스케치에 가까이 가자,

색깔을 흡수한 물감 튜브에서 색이 빠져나가 그림으로 들어갔다.

“ 그림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색을 모으면 되는 건가 ? ”

어찌저찌 텐트와 의자의 색깔을 빼낸 나는 한가지,

해가 떠오르는 호수의 그림이 색깔이 차오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

‘ 무슨 호수 색깔이라도 빠지나? . ’

색깔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나는, 부둣가에 멈춰있는 나룻배를 보았다.

‘ 설마 이 배를 타고 저기 떠있는 해라도 가봐야 하는 건가? ’

하지만 다른 수가 없던 터라, 결국 나는 나룻배에 타고, 노를 젓기 시작했다.

그렇게 한참을 젓고 보니, 해가 그렇게 멀리 있지 않고, 계속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.

‘ 노을 지는 해는 정말 예쁜 것 같아. 그렇지? ’

‘ 그런가.. ’

해에 마침내 배가 닿아 멈추자, 처음 듣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.

들린 목소리는 아마 환자와 같이 여행 온 사람 같은데, 이 환자의 기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 같아 보였다.

말이 끝나기 무섭게 해의 색깔이 전부 물감 튜브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, 이내 물감 튜브를 전부 채웠다.

‘ 이거면 노을 지는 호수가 그려지려나? ’

나는 다시 노를 힘겹게 저어 부둣가로 돌아와서 그림 근처로 향했다.

‘ VR인데 왜 힘들게 내가 노를 저어야 하는거야.. ’

투덜거리면서 나룻배에서 내려, 그림 근처로 가니 물감 튜브에서 색이 빠져나가, 그림의 마지막 남은 빈 공간을 채웠다.

‘ 노을 지는 저 해를 보며 저 해가 잡고 싶다고 말했었어. ’